

曲領에 관한 研究*

문 광 회

동의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Kok-Ryung

Moon Kwang-H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Dong Eui University, Pusan, Korea
(1990. 4.9 접수)

Abstract

Kok-Ryung covers the collar of underwear and protects the neck. It is between outer garment and underwear and its form is bent.

According to literature, Cheom-Yu, Keup, and Pang-Ryung belong to Kok-Ryung. Kok-Ryung was used in Yemaek and also it was used as a part of the uniform of government officer in Song Dynasty.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Cheom-Yu was used in Ju Dynasty, Pang-Ryung was used in Han Dynasty, and Kok-Ryung was used from Nam-Jo through Soo, Tang, Song Dynasty.

2) Cheom-yu, Pang-Ryung, and Kok-Ryung were all made of long rectangular cloth. However, Chemo-Yu and Pang-Ryung were adjusted in front of the neck, Kok-Ryung was adjusted on the back.

3) The purpose of Kok-Ryung was practical one of sweat clothes at first. But it became for decoration and dignity gradually. Therefore, the users of it were changed from the common people to high government officers.

4) Cheom-Yu, Po-Ryung, Keup, and Pang-Ryung were all a kind of scarf and they are the same with Kok-Ryung in the respect. They were put on between outer garment and underwear or attached under the collar of outer garment.

5) Kok-Ryung of Song-Sa seems to be the round collar the uniform of government officers and it is different from Kok-Ryung of Suk-Myung.

*本 研究는 1989年度 文教部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

I. 序 論

曲領에 대한 기록으로는 釋名에 그 定義가 있으며 急篇에서는 襜褕라 하였고 後漢書, 三國志에서는 濊(濊)에서 着用하였다고 했으며 禮記에서는 深衣를 설명하는 과정에 袷, 方領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고 隋書·宋史에서는 각각 그 모습과 着用例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曲領이 古代 部族國家인 濊(狷)에서 宋代에 이르기까지 千年以上 착용되어 왔으면서도 관련문헌이 극적고 深衣에서의 옷깃 문제 또한 異說이 分分하여 그 形을 推論하기가 어렵고 예(맥)역시 存立時期와 地域 限界 糾明이 명쾌히 되어있지 않으며 宋史에서 曲領은 2 당시 諸臣 公服의 등근 깃을 칭하고 있는 등 1의 難한 要因들로 인하여 그 實體 糾明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難점으로 인하여 國內의 曲領에 관한 報文은 尠소하며 國內에서는 그 研究가 전혀 되어있지 않는 상 에서 깃의 分 類 작업에 때로는 直領으로 때로는 圓領으로 사용되고 있어 曲領의 實體 糾明이 시급한 실정이라 料된다.

이에 本 研究자는 服飾史 研究의 기초분야이면서 동시 代 衣服의 系統 區分에도 매우 중요한 깃의 문제 를 재인 식하고 현재 많이 오용되고 있는 曲領을 그 研究의 대상 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은 史書에서 曲領과 관련되고 있는 諸說들을 집약하여 5郡으로 分 類하고 이들을 각각 究明하므로써 曲領의 定義에 접근하였다.

先行認識은 曲領이란 겉옷의 깃안에 있는 衣服構造物 로서 釋名에서 「曲領在內 以禁中領上 橫壅頸 其狀曲也」라고 기록된 以後 여러 문헌에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曲領 定義의 母典으로 삼고 分 類된 5郡의 關聯說들을 이 母典과 比較해가는 과정 을 거쳤다.

本 研究의 한계점은 古代社會에서 着用된 曲領이 唐·宋의 冕·朝服에 着用되기까지의 過程 糾明이 기록의 공백상 무리가 오고 濊語 諸國間의 關係史 定立의 부족 등으로 발생으로부터 멸할 때 까지의 형태변화와 변천과정 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키지는 못하였다.

次後 보다 면밀한 분석을 거쳐 曲領과 그와 관련된 諸

問題들이 다시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推論의 過程에서 오류가 있는 것은 차후 보완하도록 하겠다.

II. 領의 意味와 領을 형성하는 要因

1. II-1 領의 意味

領은 訓蒙字會에 「옷깃 領」, 「목령」, 「管領」, 「統領」, 「거르일 領」으로 되어 있고¹⁾ 字典엔 「별 領」, 「옷깃으로 衣體」, 「領과 통용」 등의 추가된 설명이 있으며 釋名에는 「領 頸也 以壅頸也」라하여 목을 가린다는 뜻이 있고²⁾ 朝鮮朝에서는 「옷 기지라」하고 있다³⁾.

이상에서 보면 領은 처음에는 목(頸) 자체를 의미하던 것이 옷깃을 의미하게 되었고 거느리고(統, 거르일 領) 관장하는 (管)의미로 발전 되었으니 이는 의복(衣體)을 관장하는 머리부분이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또 領과 통용된다고 하였는데 領은 산봉우리(山峯)로 杉本正年은 嶺은 산의 가장 높은 곳 거기서 양측으로 나뉘어지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니, 領은 衣服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 거기서 양측으로 나뉘어지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⁴⁾. 그렇다면 領은 목의 뒷 中心을 거점으로 좌우로 나뉘어지는 부분 즉 뒷 고대가 된다. 그러나 이 고대는 반드시 몸의 앞쪽으로 연결되어 앞 트임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古代 中國에서의 領의 개념은 뒷 목점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앞에서 여미어지는 모습 자체보다는 깃이 형성되는 동기를 보다 중요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字典의 「별 領」은 옷을 헤아리는 단위로 서 한 벌의 옷에는 領이 하나 있으므로 옛부터 옷을 헤아리는 단위로 領이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杉本正年은 領은 주로 목둘레를 치칭하지만 첨가된 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盤領의 깃」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하였으니⁵⁾ 서양복에서의 band collar 처럼 직선의 천을 목선에 단 깃을 領이라고도 보는 것 같다.

「領」과 함께 옷깃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는 「襟」과 「衿」이 있다.

「衿」은 처음에는 「띠」, 「끈」의 의미이었던 것이 점차 「 묶는다」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깃」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는데 보통 領에서 이어진 앞부분을 衿이라 하고⁶⁾ 襟은 釋名에 금지한다는 뜻으로 앞에서 교차하여 막기 위한 것이라 하였으며⁷⁾ 林巴奈夫는 襟은 交領에 있고 또 한 교차되는 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襟과 衿은 일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포개지는 옷의 경우 목을 감싸

는 부분이 領이고 거기서 부터 아래로 걸쳐지는 곳이襟 또는 衿이라 하였으니⁹⁾ 領이 목의 뒷 중심에서 비롯된 것의 개념이라면襟과 衿은 앞 여밈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II-2. 領을 형성하는 要因

領을 형성하는 要因을 衣服 構成的 측면에서 관찰해 보면 첫째 길(bodice)을 앞뒤 반으로 접어 앞판을 T字形으로 잘랐을 경우 이루어지는 衣體만의 領과, 둘째 거기에 별개의 천(布)을 붙여 이루어지는 領, 셋째 또 하나의 천을 두번째의 것 아래에 겹으로 붙이거나 씌워서 나타나는 二重領의 領, 넷째 둘 혹은 세가지의 의복을 겹쳐 입음으로써 나타나는 복합된 선의 領 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用途面에서 보면 목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위로 인체에 있어서 가장 보호되어야 하는 부위이기도 하다. 放寒, 放風은 물론 放暑에 이르기까지 신체보호를 위하여 古代遊牧社會로부터 다양한 것이 요구되었으니 이것 또한 초기에 것이 형성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意匠의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다. 즉 목이란 얼굴과 인접되어 있어서 시선이 많이 머무르는 곳이므로 東西古今을 통하여 목에 여러가지 장식을 시도하였음은 물론이며 특히 古代社會에 있어서 각종 儀式과 빈번한 祭禮등의 경우 당시의 관례에 따른 색채나 문양등의 의복에 채용되면서 指目度가 높은 옷깃 부위의 장식은 배제될 수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儀式을 위한 위엄이나 품위도 이 부위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으니 古代社會라 할지라도 옷깃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거나 장식하는 것 또한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曲領의 母典과 問題의 提起

III-1. 曲領의 母典

曲領은 『釋名』에 「曲領在內 以禁中領上 橫頸頸 其狀曲也」¹⁰⁾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以後 이것은 『急就篇』¹⁰⁾, 『隋書』¹¹⁾, 『事物紀原』¹²⁾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으므로 曲領을 定義 糾明하는데는 이 記錄이 母典이 된다고 하겠다. 내용을 요약하면 曲領은 첫째 (겉옷의) 안에 있으면서 中衣의 옷깃을 막는(禁) 것이고, 둘째 목을 가로로 가리는(壅) 것이며, 셋째 그 모양이 굽은(曲) 것이다.

이 의미는 曲領이 겉옷의 안, 속옷(정확히는 겉옷 바로 안에 입는 옷임)의 겹에 있다함은 外觀上 옷의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거나 혹은 그 儀式에 있어서 속옷의 노출이 금지되어 있는 등의 이유에서 속옷의 깃을 가릴 목적으로 曲領이 사용된 듯 하니 「禁中領上」은 中衣의 옷깃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禁止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목을 가로로 가린다 함은 목 즉 頸이란 목의 앞, 뒤, 옆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니 이것은 목을 감싸 보호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될 것 같고, 그 형태가 굽었다 함에서의 曲은 여러가지의 굽은 형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以後 열거되는 曲領 關聯說은 이러한 3가지 측면에서 母典의 曲領과 비교하여 그 相異點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2. 問題의 提起

古文獻에서 曲領과 관련되고 있으면서 서로 異質의 要素라고 생각되는 5郡의 문헌을 발췌 大別하고 이들을 문제의 제기로 삼았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原文을 수록하였고 曲領關聯說의 定義에서 書頭に 각각 번역하였으며 順序는 古制를 앞세웠다.

III-2-1. 擔襟와 黼領

著曲領者所以禁中衣之領恐其上擁頸也 其狀闊大而曲 因以名云 黃氏曰曲領即擔襟 補曰士昏禮注刺黼爲領如今 偃領 深衣篇曲袷如矩以應方 注古者 方領如今小兒衣領 廣川王去傳刺方領繡爾雅衣皆謂之襟注交領. <急就篇, 卷 2, 曲領.>

III-2-2. 濊(貉)에서의 曲領着用

言語法俗 大抵與句麗同 衣服有異 男女衣皆著曲領 男子繫銀花廣數寸以爲飾. <三國志, 卷13, 烏丸鮮卑, 東夷傳, 第30, 濊.>

III-2-3. 袷, 曲袷, 方領

袷二寸 注曲領也 孔疏 袷謂深衣曲領廣二寸. <禮記, 深衣, 玉藻篇.>

曲袷如矩以應方 注袷交領也 古者方領 如今小兒衣領 孔疏 鄭以漢時衣領 皆嚮下垂 故云古者方領 似今擁咽 故云若今小兒衣領 但方折之也. <禮記, 深衣, 深衣篇.>

III-2-4. 冕·朝服에서의 (白)曲領

曲領, 案釋名, 在單衣內襟領上, 橫以雍頸. 七品以上有內單者則服之, 從省服及八品已下皆無. <隋書, 卷 12, 志第7, 禮儀 7>

隋禮儀志云 曲領 按釋名……檢自歷代衣服之制 其物無

志干梁陳已來始載之 又據釋名爲制 按釋名後漢劉熙
 ≡ 當是曲領之起 亦漢儀也。 <事物紀原, 卷3. >

II-2-5. 宋史의 曲領大袖

≡ 代諸臣下公服 凡朝服謂之具服 公服從省 今謂之常服
 唐制 三品以上服紫 五品以上服朱 七品以上服綠 九
 以上服青 其制 曲領大袖 下施橫欄 束以革帶 幘頭烏皮
 自王公至一命之士通服之。 <宋史, 卷 153, 志第
 i, 輿服 5. >

IV. 曲領 關聯說의 定義

IV-1. 襜褕와 黼領

「曲領을 입는 까닭은 中衣의 옷깃을 금지하였기 때문
 그 위에 擁頸을 한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것의 모
 이 넓고 크며 굽은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이 붙은 것이다. 黃氏는 曲領을 襜褕라 하였다. 보충
 기를 <士昏禮>의 注를 보면 黼를 수놓아 領으로 만
 는데 지금의 偃領과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 <深衣
 >에서는 曲領은 곡척(矩)과 같아서 方에 응한다고 되
 1 있는데 그 注를 보면 옛날의 方領은 오늘날의 小兒들
 1 입는 옷의 깃과 같다. <廣州王去傳>에는 方領에 수를
 1 놓았다는 기록이 있고 <爾雅>에는 衣의 터진 편을 襟이
 1 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注에는 交領이라고 되어 있
 1 다.」<急就篇>

여기서의 문제점은 첫째 曲領을 襜褕라 한 것과, 둘째
 曲領인 衿유가 黼領으로 후일의 偃領이 되었고, 衿를 놓
 은 方領으로 交領이라 한 점이다. 편의상 두항을 분리하
 여 설명하고자 한다.

IV-1-1. 襜褕

字典에 襜은 「衣整貌」, 「車帷」, 「衣蔽前」이라 있고 褕
 는 「直裾襜」, 「翟羽飾衣」, 「皇后服狄」이라 있어 襜褕가
 옷의 의미와 옷의 앞을 가리는 의미, 그리고 특정 무늬
 로 장식되는 의미, 휘장의 의미 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漢代에 있어서 衿유의 정의를 보면 대부분 옷
 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急就篇에서 衿유는 直裾禪衣라 했는데¹³⁾ 禪衣란 不
 重也, 單也, 無裏也로 홑옷이며 그 모양은 가지런하고
 넓으며 여유가 있고¹⁴⁾ 大襟을 달지 아니한 것으로¹⁵⁾ 옷
 깃이 목으로부터 곧장 아래로 향하였고 西漢때는 그것이
 일상복으로만 사용되다가 漢 文帝에 이르러 百官들이 조

정에 들어갈 때에 黑色禪衣를 착용하므로서 禮服이 되었
 고 가정에서 착용하기도 하였는데 가정에서 착용하는 衿
 유는 길이가 짧았다고 한다¹⁶⁾. 뿐만아니라 漢代에서는
 庶民들이라 할지라도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
 부분 衿유를 입었고 여자들도 입었다¹⁷⁾.

그러나 前述한 急就篇의 「襜褕直裾禪衣」란 설명아래
 에 보충하여 설명하기를 衿유는 蔽膝이라고도 하며 楚나
 라에서는 襜褕라고도 하였고 關西지역에서 襜褕라하
 였다고 있어¹⁸⁾ 漢代 이전의 衿유는 그 개념이 다소 다르
 며 지역에 따라 동일 의미의 여러가지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林已奈夫는 『方言』
 을 인용하여 설명하면서 襜褕를 西南지방 蜀漢(221-265)
 에서는 曲領이라 불렀는데……襜은 襦를 말하고 褕은 襪
 을 말하며 褕은 褕領이므로 襪, 褕, 褕領은 모두 襦의 일
 종으로 曲領이라 하였고 필경 襪으로써 小兒의 턱받이
 (涎衣)로 삼아 목아래를 덮는 것으로 하였다고 했다¹⁹⁾.
 여기서 襪은 갓난애의 턱받이로 목 아래를 덮는 것이고
 褕領은 어린애의 침반이용 것이다. 또 그는 이들 침반이
 용의 襪를 襜褕와 연결하여 설명하면서 劃像石에서 윗옷
 이 여머지는 것 사이로 샤프트 내외의 가장자리가 드러
 나는 예가 많은데 이것은 內衣의 襪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들 襪는 보온용도 있지만 襪받이 용도 있었는
 데 이것은 『方言』에서 汗襪로 설명하고 있다. 즉 『方言』
 에 『汗襪…陳魏宋楚之間謂之襜褕 或謂之禪襪.』라고
 있어 일정기간 汗襪를 衿유라고 불렀다고 했다²⁰⁾. 그런데
 陳, 魏, 宋, 楚은 모두 周末 춘추전국시대에 存立했던
 나라들로서 漢代보다 시대적으로 훨씬 앞서고 있다.

以上에서 보면 衿유는 원래 襪받이용의 汗襪이었는데
 周代末 陳, 魏, 宋, 楚에서 衿유로 命名되면서 秦를 거
 쳐 漢에 이르기까지 100여년 사이에 衣服으로서 구체적
 형태를 갖추면서 점차 그 品格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周代末의 衿유는 襪받이의 목적으로 옷안에 덧
 입었는데 그 형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목에 襪이 나
 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수건등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 처음의 착용이유가 襪받이였으니 격
 식이나 품위를 갖출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실용적 목적이
 었고 釋名에서의 曲領 定義와 비교해 볼 때 그 구체적인
 과정은 알 수 없으나 衿유가 曲領의 모태가 된 듯하다.

IV-1-2. 黼領

曲領인 衿유는 黼를 수놓아 領으로 만든것으로 後代의
 偃領과 같은것이고 方領에 수를 놓은 것으로 교령이라고

하였다.

먼저 黼를 수놓아 領으로 만든것은 『爾雅』에 「黼領謂之褱」²¹⁾이라 하여 黼領이란 단어가 있으므로 黼領이라 칭하고자 한다.

黼란 원래 古代 극동아시아의 소수민족에게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中國에서는 일찌기 殷과 周에서 사용하였고²²⁾ 紋飾으로는 도끼(斧), 색상으로는 黑白을 의미하며 君主와 臣下間에 離合의 義와 去就의 理를 結定하는 등 결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意味있는 紋飾이었다²³⁾. 그런데 이 黼紋은 처음에는 皇帝만 사용하였으나 惡靈이나 疫病등으로부터 몸을 보호 한다는 일종의 呪術的 意味를 갖게 되면서 부터 점차 그 사용의 폭이 넓어져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²⁴⁾.

黼領에 관하여서는 <儀禮 卷第2 士昏禮>서 결혼식 때 뒤따르는 女從者들의 복장중에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즉 신부를 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래 위가 검은 衫衣를 입으며 머리싸개(幘)와 비녀(簪)를 하며 그 후에 穎黼를 덮는다(被). 그 注를 보면 신부를 시종하는 사람이란 조카(姪)와 여동생(娣)을 일컫는데 『詩經』에 말하기를 모든 여동생과 조카들이 그 뒤를 구름처럼 몽게 모여 따른다고 하였다. 衫은 玄과 같아 아래 위가 모두 검은 穎은 禪이다. 『詩經』에 素衣失褱이라 있는데 『爾雅』에 의하면 領에 수놓은 것을 褱이라 하고 『周禮』에 의하면 흰색과 검정색을 黼라 하는데 天子, 諸侯의 后夫人은 狄衣를 입고 卿大夫의 妻는 黼를 수놓아 領으로 삼았는데 오늘 날의 偃領과 같다. 士人의 妻는 시집갈 때 禪黼를 領 위에 덧붙이므로써 盛裝을 흉내 낼 따름이다. 덮는다(被)고 하는 것은 분명 항상 입는 옷은 아니다²⁵⁾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보면 褱은 領에 수놓은 것을 의미 하는 것이요, 黼는 褱이되 흰색 검정색으로 도끼무늬를 수놓은 것이고 偃領이며 卿大夫의 妻가 혼례시 착용하였고, 穎黼는 禪黼로 士人의 妻나 女從자들이 착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王關仕는 大夫 以上(大夫포함 안됨)의 계층에서 여자(妻)들이 결혼할 때는 領에 바로 繡를 놓으며 따로 繡를 놓은 領으로 덮어 가리지 않는다고 하였다²⁶⁾. 이는 즉 大夫를 포함한 以下의 계층에서는 평상시 착용하던 禮服에 黼領을 덮어 임시적인 婚禮服으로 사용한 듯 한데 穎黼領은 黼領보다 한층 낮은 계층에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穎은 禪이라 하였고 禪衣는 檐褱이니 첨유에 수를 놓았다 함은 곧 穎黼領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고 본

다. 한편 黼領이 偃領이라 함은 偃領이 곧 曲領이니 黼領은 曲領이다. 단지 수를 놓은 점이 다른점이라 하

다. 다음으로 褱 즉 黼領을 단 위치인데 『詩經』에 「素衣褱」이라 있다. 그 注에 보면 褱은 깃(領)인데 도끼무늬를 수 놓은 것이고 丹失의 中衣를 입는다는 것은 帝侯 옷으로 이것은 中衣에 도끼무늬가 있는 領을 붙이고 矢로 가장자리(緣)를 두르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⁸⁾. 따라서 이것 역시 中衣의 깃 위에 있는 것이니 자연히 袷 안에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推論해 볼 때 褱, 黼領, 穎黼領은 모두 수놓은 것으로 大夫以下의 계층에서 혼례시 中衣의 깃에 임시로 붙여 그 禮式에 응하도록 한 것으로 檐褱는 중에서도 비교적 계층이 낮은 士大夫 以下와 女從子들 착용한 것이다.

그런데 또 方領에 수를 놓은 것을 交領이라 하였다. 方領에 대하여서는 後術하겠지만 앞에서 여겨지는 모으로 交領이니 黼領의 일종인 첨유가 釋名에서의 曲領 다른 점은 수를 놓은 점이고 그 곱어진 모양은 뒤에서 나게 꺾여 앞에서 여겨진 것이라고 하겠다.

IV-2. 澣(貂)에서의 曲領 着法

「言語와 法俗은 대체로 句麗와 같으나 의복은 다르다. 남자나 여자가 모두 曲領을 입는다. 남자는 특히 銀花 달았는데 넓이가 數寸이며 이로써 장식하였다²⁹⁾.」

三國志 東夷傳에서는 澣에서 曲領을 착용 하였다고 하고, 後漢書 東夷列傳에서는 澣貂에서 曲領을 착용 하였다고 있는데 澣와 澣貂이 同一國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아니라 고구려가 언급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고구려와 인접된 나라로 추정되는데 그 동쪽에 東澣가 있었다. 따라서 澣貂과 澣, 東澣 三國間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澣(貂)에서의 은화로 장식된 곡령 착용의 근거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 三國에 대하여 史學者들 사이에는 다소간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생각되는 說들을 모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澣와 貂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은 先秦時代이며³⁰⁾ 滿貂으로 합쳐서 구체적인 역사의 사실과 결부되어 기록되는 것은 漢書 이후인데³¹⁾ 이 중 澣는 한반도 북부에서 夫餘족의 일부로 있다가³²⁾ 점차 남하하여 한반도로 진출하였다³³⁾. 이후 漢四郡의 설치로 일시 망하였는데 漢이

D 30년 東部都尉를 철폐하자 漢四郡 중 臨屯의 故地에 다시 일어난 부족국가가 東濊이었다³⁴⁾. 尹武炳은 濊나 濊貊과의 관계는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이들에 대한 기록은 漢書에서 시작하여 그대로 三國志에 이어졌고 後漢書에서는 더욱 度를 加하여 갈피를 못잡게 되었다고 하니³⁵⁾ 後代에서 그 정확한 구분을 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가지 거의 일치되고 있는 견해는 濊 또는 濊貊이 古朝鮮을 구성한 古代 韓民族의 一部가 되었다는 것이다³⁶⁾.

그런데 濊族은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된 나라로서 한반도에서 고구려와는 다른 또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였으니 尹乃鉉은 신석기 말기 한반도에는 몽고에서 서해안을 거쳐 남해안으로 흘러오는 문화의 흐름과, 한반도 동북지방 연안의 흐름이 서로 달랐는데 동북지방에서는 주로 魚勞生活과 農耕生活을 하였으며 石斧型的 칼(刀器)을 사용하였다. 또한 骨針이나 紡鍾車가 출토되기도 했는데 이들 출토품으로 미루어 처음에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간단한 의복을 걸치다가 나중에는 紡鍾을 이용하여 옷감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조개껍질이나 구슬로 간단한 장신구를 만들어 쓸 줄 알았다. 그 당시 민족으로서 사회나 사상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종족이 濊族이라 하였다³⁷⁾.

이렇게 볼 때 몽고에서 서해안을 통하여 흘러들어온 문화권이 袴褶制의 고구려 문화권이라면 한반도 동북지방으로 흐르는 문화권은 濊 혹은 東濊의 문화권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도끼무늬(斧)를 즐겨 사용하였고 조개껍질이나 구슬의 장식을 좋아했음과 문화의 발달이 주변국들 보다 先行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濊 혹은 東濊에서 曲領着用은 가능해 보이며 조개껍질이나 구슬로 어떤 무늬(斧紋도 포함되겠지만)를 장식하였다는 것이 후 銀花의 장식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를 副證하는 것으로서 東夷 중에 최대의 부족이었던 扶餘는 고구려의 북방, 松花江의 상류역에서 黑龍江 남안 일대에 거주하고 있었던 濊馬民族인데 종족으로는 고구려에 가까웠다. 그들의 복식은 袴와 袍에 繪이나 繡를 즐겨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은 각종의 털옷(裘)을 겹쳐입고 모자에 銀花로 장식하였다³⁸⁾고 있는데 扶餘族은 濊이었고 이들이 남하하여 東濊를 형성했다는 前述에 따라 그들의 복장에 수를 놓은점, 銀花를 장식하는 점 등이 공통점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扶餘에서 신분이 높은자가 착용하였다는 裘는 원래 裘(

皮製服)인데 周禮에서 天子가 하늘, 땅에 제사지낼 때 입는 옷으로 여기에는 주로 흑백의 도끼무늬가 있어 특히 黼裘라고까지 하였다³⁹⁾. 이것은 前章에서 記述한 黼領으로서의 曲領과 어떤 연관이 있는것 같으나 단정할 수는 없다.

이상의 내용에서 추론해 볼 때 濊(貊)에서 銀花로 장식된 曲領着用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예와 예맥, 동예, 부여 그리고 인접되어 있었던 고구려 등에 대해 시대적 지리적 한계규명, 그들 문화의 분석, 상호의 영향관계등에 대해 보다 넓은 연구가 이루어지면 고대사회에서의 곡령의 구체적인 모습의 파악 또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IV-3. 袷 · 方領

『禮記』 「玉藻篇」에는 「袷의 넓이는 2寸이다. 그 注에 曲領을 말한다고 있고 孔氏의 疏에는 袷은 深衣의 曲領을 말하는 것으로 넓이가 2寸이다.」라고 있고, 『禮記』 「深衣篇」에는 「曲袷은 곡척(矩)과 같아서 그로써 모진데 응한다 하였는데 注에 袷은 交領이고 옛날의 方領은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입는 옷의 領과 같다고 하였다. 孔氏의 疏에서는 鄭玄이 漢代의 옷깃(衣領)이 모두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 교차되었다 라고 한 것을 보고 옛날의 方領은 오늘날의 擁咽과 같다고 한 것이고 따라서 지금의 어린아이들이 입는 옷의 領과 같다고 한 것이다. 단 그것은 모나게 꺾어진 것이다.」라고 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袷, 曲袷, 方領의 정의 규명과 이들과 曲領과의 관계 규명이다. 그런데 연구결과 曲袷은 方領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므로 方領에 포함시키며 이들의 보다 정확한 규명을 위하여 袷, 方領의 문헌을 그대로 인용 번역 한 후 現代의 여러 學者들의 견해를 거쳐 結論에 도달하는 方式을 택하고자 한다.

IV-3-1. 袷

· 衣裳의 안을 댄 것을 袷이라고 한다. 黃氏에 의하면 袷의 품은 袷(夾)이고 솜을 두지 않은 衣이다. 보충하기를 『廣韻』에는 겹옷(複衣)이라고 되어 있고, 「匈奴傳」을 보면 수를 놓은 袷이라고 되어있으며 『論語』에는 봄 옷이 완성된다는 구절을 설명하는 注에 單袷을 입을 시기라는 내용이 보인다⁴⁰⁾.

· 袷은 領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교차시켜 합하는 까닭에 이러한 이름이 붙게 되었다⁴¹⁾.

· 『曲禮』에서 말하기를 시선은 袷의 위로 미칠 수 없

다고 되어 있는데, 鄭氏는 衿은 交領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領이 교차되어 모이는 곳은 자연스럽게 方形이 된다⁴²⁾.

· 목 아래에 별도로 하나의 衿을 달아 교차되는 領을 正方形이 되도록 한 듯하다. 그것은 오늘날의 朝服은 白羅를 가지고 2寸 가량의 方心曲領을 만들어 圓領의 위에 붙여 두르되 목 뒤에서 여미는데(結) 어찌면 衿이 남아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⁴³⁾.

· 숨을 두지 않는 옷을 衿이라고 한다. 이는 곧 袂字의 뜻으로서 4寸의 겹은 견을 대서 夾縫하여 2寸으로 만드는 것 같다. 또 純이라 하지 않고 衿이라고 말한 것은 배 원폭 끝에 따로 달 것을 대어 오늘날 上領과 같이 하기 때문에 또한 曲領이라고 하는 것 같다. 더러는 衿을 衿(領)이 교차하는 곳이라고도 한다. 두 것이 마주 닿아 합하는 때문에 衿이라고 하는데 누가 옳은지는 알 수 없다⁴⁴⁾.

· 衿은 二寸이고……緣의 넓이는 二寸이다⁴⁵⁾.

· 衿이 없는 경우 다만 黑緣 2寸으로 하는데 衿이 없다면은 儉約함을 숭상한 것이다⁴⁶⁾.

이상에서 衿의 의미를 분류해 보면 크게 옷의 의미와 깃의 의미로 大別되나 이들 둘은 숨을 두지 않는 겹포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깃의 의미로는 3가지로 요약 될 수 있으니 하나는 4寸의 띠를 2寸으로 겹봉하여 만든 것이고, 둘은 시선이 머무는 여밈 점 즉 衿과 同一意味로 깃이 교차되는 곳이고, 셋은 배 원폭 끝에 따로 달 것을 달아 正方形으로 교차시키되 후일 方心曲領의 母體가 된다는 것이다.

曲領과 연관된 衿의 의미는 깃의 의미이다. 것으로서의 衿을 요약하면 衿은 4寸으로 자른 좁고 긴 천(布)으로 숨을 넣지 않고, 2寸으로 겹봉하여 배 원폭 끝(길 즉 胸의 목선을 의미하는 것 같음)에 따로 이것을 달아 앞에서 正方形으로 교차시킨 것으로 深衣의 길 자체에 붙은 옷깃(純 혹은 緣)과는 다르며 純이나 緣 보다는 半寸 넓은 것이고 純이나 緣이 목을 포함하여 옷 가장자리 모두를 두루 감싸는데 비하여 衿은 衿이라고 하는 별개의 布로 목 부위만 드르는 것이니 검약함을 숭상할 경우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았으며 목 앞에서 서로 교차되고 교차점이 생긴다. 이 교차되는 모양이 正方形이고 시선은 이 교차점 이상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純과 衿을 모두 갖추는 경우 겹에서 보아 2重의 깃이 되며 그 두른 모양은 앞에서 등글지 아니하고 뒤에서 꺾여 앞으로 내려오므로 『禮記』에서 「모나게 꺾인

것이고 衿은 深衣에서의 曲領」으로 단서를 붙여 說明한 것으로 보인다. 즉 衿은 釋名의 曲領說에 비추어 겹옷에 두르는 점, 목을 감싸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同一뜻을 갖고 있으나 曲의 형태가 뒤에서 꺾여 앞에서 교차되는 것이 그 다른점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方心曲領이 衿의 遺制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되며 그 상세한 것은 冕·朝服에서의(白)曲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IV-3-2. 方領

· 方領을 입고 똑바른 걸음(矩步)을 익힌다. 注에 方領은 直領이다⁴⁷⁾.

· 司馬溫公이 가로되 方領은 오늘날의 上領衣와 같고 다만 方形으로 재단하는 데 본래 胡服에서 유래한 것으로 매듭 단추(結紐)를 써야 한다고 하였다⁴⁸⁾.

· 孔氏의 말(옛날의 方領은 오늘날의 擁咽과 같다)고 같다면 三代 이전의 사람들이 도리어 方形으로 재단된 오늘날의 上領衣와 같은 것을 입었다는 것처럼 된다. 上領衣의 출현을 고찰해 보면 그것은 胡服에서 나온 것으로 매듭단추를 사용해야만 입을 수 있는 것이니 과연 古代인들이 이와 같이 하였는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鄭氏가 周禮에 단 주석……과 顏師古의 漢書에 대한 주석……을 보면 古代인들도 매듭단추가 있었다⁴⁹⁾.

· 方領은 두 衿이 서로 가리우고 衿이 거드랑이 아래에 있는 즉 兩領이 만나는 곳이 스스로 方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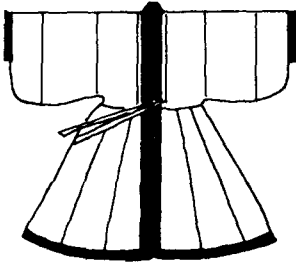
以上에서 보면 方領은 方形으로 교차되는 直領이고 宋代의 上領衣와 같되 方形으로 재단하며 매듭단추를 사용하여 여미는 것이다.

그런데 後漢書와 釋名에서는 衿의 云云이 없는 直領인데 비하여 清代 江永이 쓴 深衣考誤에서는 直領이 되 襟(襟)이 云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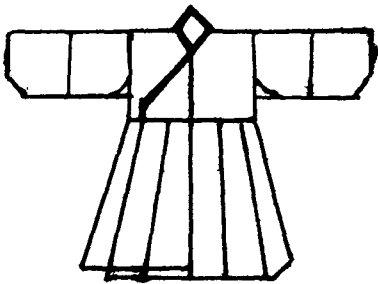
直領에 있어서 衿의 有無는 앞여밈 모양을 다르게 한다. 즉 제작된 의복에서 衿이 없는 것은 앞 중심이 수직으로 겹치지 않고 맞보게 되며(以後 1字形이라 함) 衿이 있는 것은 앞중심이 사선으로 겹쳐지면서 목선이 옆으로 넓어진다(以後 y字形이라 함).

그런데 朝鮮朝 深衣모양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⁵¹⁾ 衿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前述한 1字形(그림 1)과 y字形(그림 2)이다. 또한 이것은 深衣뿐만 아니고 深衣制를 活用한 喪服의 구조에서도 두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世宗때의 喪服制度에서는 1字形으로 있되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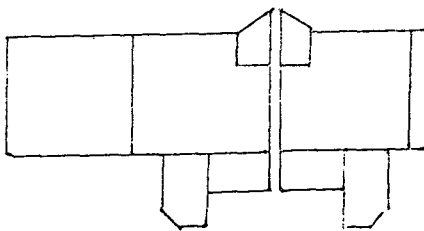
선중기를 전후하여 바뀌어졌으니 四禮便覽에서 喪服의 新·舊제도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으로 舊制度는 1字形, 新制度는 y字形이다(그림 3). 이로써 본다면 1字形 즉 襟이 없는 것이 y字形 즉 襟이 있는 것보다 시대적으로 앞선 형이며 이것이 深衣의 原形이라고 보아진다. 그런데 一字形을 입었을 경우 의도적으로 앞여밈 부위를



[그림 1] 襟이 없는 深衣(홍진중 유물, 고려대 박물관 소장)



[그림 2] 襟이 있는 深衣(家禮附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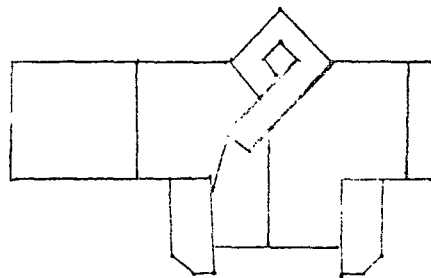
舊制度

수직으로 늘뜨리지 않는 이상 y字形으로 포개진다. 그러나 그 여밈의 포개지는 여분은 襟이 있는 것보다 월등히 적고 목 언저리 역시 양옆에서 꼭 끼이게 되므로 襟이 있고 목이 파인 y字形보다 불편함을 알 수 있다.

鄭氏의 說인 「옛날의 方領이…… 모두 아래를 향하여 내려가 교차되었다」는 것은 앞에 襟이 없는 1字形으로서 여밈의 포개지는 여분이 없으므로 아래로 내려가서 교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본다면 方領이란 말 또한 각을 이루며 꺾이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니 1字形이든 y字形이든 이들 모두는 그 여밈점이 아래·위로 조금 차이가 날 뿐 각을 이루며 서로 교차되는 것은 同一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方領이란 명칭이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方領을 입고 똑바른 걸음을 익힌다는 것은 周易에 直方大라 하여 坤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유순하면서 바른것을 고집하는 것이 坤의 곧음(直)이요, 만물에 형태를 부여하는 정연한 법칙이 坤의 법도(方)이며 乾의 끝없는 德에 배합되는 것이 坤의 성태함(大)이라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고⁵³⁾ 것이 모나게 된 것은 義가 풀어지는 것을 막고 政을 바르게 하기 위한 표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하였으니⁵⁴⁾ 이 또한 등글지 않고 각을 이루며 꺾이는 方領의 이치를 설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司馬溫公이 말하는 上領衣와 方領의 문제이다. 上領衣는 宋代에서 사용한 團領의 初期名稱⁵⁵⁾으로 當時 君臣의 冠服이며 公·常服으로 매우 보편화되어 있던 등근 깃에 右측 목덜미에서 매듭단추로 여민 것이다. (그림 4) 그런데 孔子가 옛날의 方領은 宋代의 攤咽과 같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孫敬子, 金英淑은 옹인은 목을 둘러싸는 수건 등속의 것이라 하였고⁵⁶⁾ 張末元



新制度

[그림 3] 喪服裏衣 制度(四禮便覽 卷之 1)



〔그림 4〕 宋人像(中國古代服飾研究, 235.)

은 方領과 曲領은 용도가 비슷하고 역시 中衣의 겉에 들렸으며 曲領의 형식은 굽없고 方領의 형식은 모진 것인데 용도는 모두 僂領과 같다고 하였고⁵⁷⁾ 또 曲領, 方領, 方心曲領등은 모두 領巾의 일종인데 영건이란 領衣라고도 하며 특별히 만든 일종의 옷깃으로 中衣겉에 전용되었으며 禮服에 많이 사용되었다고⁵⁸⁾ 하였으니 方領은 목을 싸는 수건 등속의 것이되 中衣 위에 두르기 위해 특별히 만든 옷깃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袷이란 緣이 아니고 緣아래 배 원폭의 끝에 따로 달 것을 대어 만든 것이라 하였다. 이로써 보면 袷과 方領은 결국 同一한 것으로 深衣에 있어서 1字形이든 y字形이든 검은색의 緣 아래에 따로 직사각형의 布를 부착 혹은 두른 것이며 袷이 衿, 襟 등과 비슷한 말로써 衣服의 구조적인 면에서 붙여진 명칭이라면 方領은 그 두르는 모습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方領은 釋名에서의 曲領과 근본적인 의미는 같은 것이되 굽은(曲)모습이 方領은 뒤에서 앞으로 돌려 앞에서 여며 交領을 이루는 형태인 것이다.

IV-4. 冕·朝服에서의(白)曲領

「曲領은 釋名에 의하면 單衣안 襟領의 위에 있으며 목을 가로로 가린다. 7품이상 內單이 있는자가 그것을 입

고 從省服과 8품이하에서는 모두 없다」<隋書>.

「隋의 禮儀志에 의하면 釋名에 의거하여 말하기를……역대 의복제도를 점검해 볼 때 그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隋志에 梁陳 이후 그것을 쓰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釋名에 의거하여 그 制度를 말하고 있는데 釋名은 後漢의 劉熙가 지은 책이므로 曲領은 마땅히 漢代에 시작된 儀制로 보인다.」<事物紀原>

隋書는 唐代에 기록되었고 事物紀原은 宋代에 집필된 책인데 事物紀原에서 隋書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은 隋·唐·宋代의 曲領 모습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첫째 곡령은 從省服에는 없고 7품이상 內單이 있는자가 착용하는 점이고, 둘째 漢에서 시작된 儀制이나 주로 梁陳때부터 隋, 唐, 宋의 일부까지 착용되었다는 점이다.

從省服은 隋 楊帝가 百官에게 입힌 戎服으로 宋朝에서는 君臣의 公·常服으로 착용된 것이니⁵⁹⁾ 후일 團領으로 命名되는 前稱이었다⁶⁰⁾. 단령에 있어서는 그 깃의 모습 자체가 둥글어 목을 감싸고 있으므로 속깃이 거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曲領착용의 필요성이 없으니 曲領을 여기에 착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8품이하에 曲領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함은 團領이 아닌 直領 즉 冕·朝服의 경우를 두고 이르는 것이니 冕·朝服의 경우라 할지라도 7품이상으로 內單이 있는 者들만이 착용한 것이다. 이로써 보면 曲領은 비교적 上層의 官更가 착용하는 것으로 품위나 禮를 갖추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冕·朝服에서의 曲領이 着用된 時代의 한계에 대해서 周錫保는 南朝의 諸王들이 絳紗袍를 입고 皂緣 白紗中單에 白曲領으로서 朝服을 삼았다고 하였고⁶¹⁾ 閻立本の 文帝像에 여자들이 曲領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衣服의 다른 요인들을 두루 분석해 볼 때 南朝의 풍습이라 하였다⁶²⁾(그림 5).

따라서 冕·朝服에 나타나고 있는 늘어진 흰 깃인 曲領은 南朝인 梁陳에서 착용되었다는 說이 입증되며 이는 대체로 北魏에서 胡服이 발달되어 있었던 당시의 양상에 비추어 南朝에서는 전통적인 漢의 양식을 고수하고 있었으므로 그 발달이 漢이었다고 보는 것 또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白曲領이 착용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비교적 풍부하다. 즉 冕·朝服의 着用圖에서 겉옷안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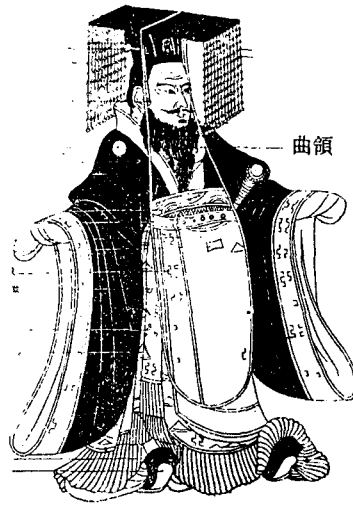


〔그림 5〕 陳文帝像 뒤의 2侍女. (中國古代服飾研究, 165)

옷 위에 둘러져 있으면서 속깃이 보이지 않도록 두른 크고 넓은 깃류가 그것이다. 여기에 대해 周錫保는 「冕服圖」(그림 6)에서 曲領을 標識하였고, 臺北版 中國古代服飾研究에서는 曲領을 「半圓硬領襯衫式」이라 하면서 閻立本の 「列帝圖」(그림 7)에 그 모습이 정확하다 했으며⁶³⁾ 杉本正年은 「陸煙閣功臣圖」(그림 8)에서 曲領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들 모습은 한결같이 앞에서 여윌게 늘여지면서 몸에 붙지 아니하고 들려 있다. 이것은 생각컨대 재단상의 문제인것 같은데 즉 둥글게 재단하지 아니하고 직사각의 方形으로 재단해야만 이러한 형태가 될 것 같다. 이것은 漢代의 袷의 재단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며 袷이 앞에서 여민 것이라면 그림 6~8등에 보이는 곡령은 뒤에서 여민것이다. 이상에서 梁陳에서 隋, 唐, 宋에 이르기까지 冕·朝服에 나타나는 白曲領은 釋名에서의 曲領定義와 同一한 것이되 그 굽은(曲) 모양이 둥근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白曲領이 宋代어느 시점부터 文獻上에도 圖畫上에도 나타나지 않고 대신하여 方心曲領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 杉本正年은 「女孝經圖」에서 方心曲領이 처음 보이는데 이것은 五代 혹은 宋朝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이후 曲領이 方心曲領으로 변화된 듯



〔그림 6〕 皇帝 冕服圖 (中國古代服飾史,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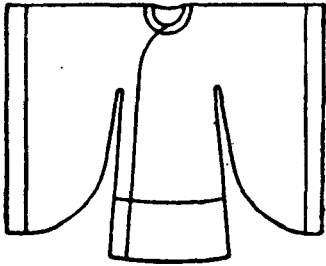


〔그림 7〕 列帝圖 (中國古代服飾研究, 166.)

하다고 하였고⁶⁴⁾, 臺北版 中國古代服飾研究에서는 宋代 사람들이 曲領을 관련없는 사실과 합쳐서 方心曲領의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 목에 두르되 앞 아래에 자물쇠 같은 것을 달아 늘어지게 만들어 옷 밖에 달았는데 이것은 龔崇義의 「三禮圖」중 크게 오류를 범한 것이고 元의 「事林廣記明」과 「三才圖會」가 그대로 이어받아 그리므로써 瓦전에 瓦전을 계속하여 후일 본래의 모습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였고⁶⁵⁾.



[그림 8] 陸烟閣功臣圖 (東洋服裝史論攷 中世編, 130.)



[그림 9] 宋代百官의 公服(中華服飾圖錄, 119.)

그런데 宋代의 冕·朝服圖를 살펴보면 설을 넓게 달아 서인지 앞여밈에 있어서 많이 포개지면서 앞 교차부위가 위로 바싹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겹옷의 깃 만으로도 속옷의 깃이 가려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속옷의 깃을 가리는 曲領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대신하여 나타난 것이 方心曲領으로 겹옷 밖에 두르는 원형의 장식물이었다. 方心曲領은 宋에서 비롯되어 明에 이르기까지 冕·朝服등 직령의 옷깃 위에 착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공민왕 때 사용된 이후 朝鮮朝에 그 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5. 宋史의 曲領大袖

「宋代 諸臣下의 公服條에 朝服은 具服이라고 한다. 宋은 唐의 制度를 이어 받아 3品以上은 紫色, 5品以上은 朱色, 7品以上은 綠色, 9品以上은 靑色을 입는다. 그 제도는 曲領大袖이며 아래에 橫欄을 붙이며 革帶, 幘頭, 烏皮鞵를 신는다. 王公에서 한번이라도 벼슬을 한 선비

면 누구나 그것을 입는다.」<宋史>

그런데 宋代 諸臣의 公服을 보면 袍衫制로 그 양식이 一律的으로 盤領大袖이며 아래에 橫欄을 붙였고 그 모습은 (그림 9)와 같다고 하였다⁶⁶⁾.

이로써 보면 宋史에서의 曲領은 盤領 즉 등근 옷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겹옷의 깃모습을 說明하는 것이며 따라서 釋名에서의 曲領과는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V. 結 論

曲領은 釋名에 겹옷의 안에 있으면서 中衣의 옷깃을 막는 것, 목을 가로로 가리는 것, 그 모양이 굽은 것이라 했다. 曲領과 관련이 있는 5郡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檐襟과 方領과 冕·朝服에서의 白曲領은 모두 釋名의 曲領說과 합치된다. 다만 첨유와 방령은 앞에서 여며 交領을 이루는 것이고 白曲領은 뒤에서 여며 등근 모양을 이루는 것이다. 석명에서 곡령이 굽었다(曲) 함은 이들 두 형태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첨유, 방령, 백곡령은 용도면에서는 同一한 것이고 형태면에서는 다른 것으로 모두 曲領의 종류로 생각된다.

2) 檐襟과 黼領은 周末期에, 그리고 袷과 方領은 주로 漢代에 사용된 것이고 梁陳으로부터 隋, 唐, 宋에 이르기까지 白曲領이 君臣의 冕·朝服에 사용되었고 宋代 어느시점에서 曲領은 없어지고 方心曲領이 대신하여 나타났다.

3) 古代部族國家인 濊(貊)에서 銀花로 장식된 曲領이 착용되었다.

4) 檐襟, 黼領 그리고 濊(貊)에서의 曲領은 繡를 놓은 것으로 이들은 모두 漢代以前의 곡령이었다. 수는 주로 도끼무늬이고 이것은 석명에서의 곡령과 다른 점이다.

5) 曲領의 제작방법은 方形의 긴 사각 布로 2겹 겹봉한 것 같고 이것은 交領인 曲領들도 同一하다. 方形으로 재단한 것에는 곧음, 정연한 법도, 德이라는 坤의 眞理가 포함되어 있었다.

6) 사용목적은 땀받이의 실용적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나 특수 의식에서 장식의 목적 그리고 品位나 格式을 갖추는 禮의 목적으로 변화되었다.

7) 착용계층은 서민에서 上流層의 官吏로 바뀌어 갔다.

8) 檐襟은 周代에서는 땀받이 용의 가리개 정도였는

漢代에서 衣服으로 되어 있었고 평상복에서 예복으로
品格이 점차 올라갔다.

9) 深衣에서 曲領인 衿은 검소한 경우 의복에 붙이지
않았고 緣만 들렸다.

10) 檐榆, 黼領, 袷, 方領등은 領巾類에 속하는 것으
로 袷의 것 아래에 別布를 두르거나 부착시킨 衣服構
造物이다.

11) 宋史에 기록된 曲領은 諸臣 公服의 등근것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여 釋名에서의 曲領과는 다른 것이다.

引用文獻

- 1) 崔世珍, 訓蒙字會, 弘文閣, (1985).
- 2) 釋名, 卷第 5, 釋衣服 第 16.
- 3) 世祖代간행, 大方廣圓學修多羅了義經診解, 上 1 之 2.
- 4)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篇, 文化出版局, 85, (1979).
- 5) 杉本正年, 앞책, 90.
- 6) 杉本正年, 앞책, 84.
- 7) 釋名, 「襟 禁也 交於前 所以禁禦風寒也。」
- 8) 林巳奈夫, 漢代の文物,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7-18, (1976).
- 9) 釋名, 卷第 5, 釋衣服, 第 16.
- 10) 急就篇, 卷 2.
- 11) 隋書, 卷 12, 志第 7, 禮儀 7.
- 12) 事物紀原, 卷 3.
- 13) 急就篇, 卷 2.
「여기에 대해 張末元은 直裾禪衣는 옷깃이 목으로부터
곧장 아래로 향했으며 曲裾禪衣는 옷깃이 목에서 구부
러져 비스듬하게 거드랑이 밑으로 내려간 다음 아래
옷자락을 통과 했다고 하였다. 漢朝服裝圖樣資料,
11-15, (1984).
- 14) 急就篇, 卷 2.
「檐榆直裾禪衣也 謂之檐榆者取其檐榆而寬裕也。」
- 15) 杉本正年, 앞책, 197.
- 16) 張末元, 漢朝服裝圖樣資料, 金英淑譯, 民族文化社,
10, (1984).
- 17) 張末元, 앞책, 100.
- 18) 急就篇, 卷 2.
- 19) 林巳奈夫, 앞책, 9.
「方言」四一「襦 西南蜀漢謂之曲領 或謂之襦」, 「掩謂之
襦」, 設文-「襦謂之掩」, 「襦樞領也」, 載震-「蓋以施爲
小兒涎衣, 掩頸下者」

- 20) 林巳奈夫, 앞책, 10.
- 21) 爾雅, 卷中, 釋衣服, 第 5.
- 22) 杉本正年, 東西의 服裝史, 衣生活研究所, 23, (1985).
- 23) 周禮, 疏卷 21, 7.
- 24)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 古代篇, 앞책, 88.
- 25) 儀禮, 卷 第 2, 士昏禮, 第 2.
「女從者畢袷玄 驪笄 被穎黼 在其後(女從者謂姪婦也 詩
云 諸姊從之 祁祁如雲 袷同也 同玄 上下皆玄 穎禪也
詩云 素衣朱襮 爾雅云 黼領謂之襮 周禮曰 白與黑謂之
黼 天子諸侯后夫人狄衣 卿大夫之妻 刺黼以爲領 如今
僂領矣 士妻始嫁 施禪黼於領上 假盛飾耳 言被明非常
服.)」
- 26) 王關仕, 儀禮服飾考辨, 台北文史哲出版社, 184-185,
(1977).
- 27) 張末元, 앞책, 36.
- 28) 詩經, 揚之水.
- 29) 三國志, 卷 13, 烏丸鮮卑, 東夷傳, 第 30, 歲.
後漢書, 卷 85, 東夷列傳, 第 75, 歲貊.
增補文獻備考, 卷之 79, 禮考 26, 章服 1.
- 30) 三上次男, 古代東北亞世亞研究, 卷 2, 吉川弘文館,
354, (1966).
- 31) 尹武炳, 歲貊考, 白山學報, 第 1 號, 15, (1966).
- 32) 李丙壽,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228, (1983).
- 33) 杉本正年, 韓國의 服飾, 文化出版局, 17, (1983).
- 34) 柳喜卿, 韓國服飾文化史, 教文社, 34, (1980).
- 35) 尹武炳, 앞논문, 16.
- 36) 尹乃鉉, 古朝鮮의 社會性格, 韓國古代史新論, 一志
社, 156, (1986).
韓國民俗大觀, 고려대학교 출판부, 48, (1980).
金貞培, 世界日報, 1990년 3월 31일, 8면.
- 37) 韓佑勳, 韓國通史, 己酉文化社, 6-9, (1987).
- 38) 杉本正年, 韓國의 服飾, 앞책, 21.
- 39) 馮虛閣李氏, 閩閩叢書, 卷之 2, 縫紉則.
- 40) 急就篇, 卷 2.
「衣裳施褻曰袷 黃氏曰袷音夾衣無絮也 補曰 廣韻復衣 甸
奴傳繡袷 論語春服既成 注衣單袷之時」
- 41) 禮記偶箋, 卷 3, 深衣.
「袷領也 以交而合故名」
- 42) 司馬光, 書儀, 卷 2.
「曲禮曰 視不上於袷 鄭曰袷交領也 然則領之交會處自
方」
- 43) 바로 앞책.
「頸下別施一袷映所交領使之方正 今朝服被方心曲領以白
羅爲之方二寸 許綴於圓領之上以帶於頸後結之 或者袷
之遺像也」
- 44) 礪溪隨錄, 卷之 25, 續編上.
「說文云 衣無絮爲袷 即袷字之意 似當自絹四寸 夾縫爲二
寸 且不云純而云袷 則似當布外別綴 如今上領 故亦云

- 曲領也 或云袷交領也 兩領以交面合 故謂之袷 未知孰是」
- 45) 禮記偶箋, 卷 3, 深衣.
「袷二寸……緣廣寸半」
- 46) 宋翼粥, 龜峯集, 卷7.
「家禮則無袷只以黑緣二寸廣 袷而用之蓋儉約也」
- 47) 後漢書, 儒林傳.
「服方領 習矩步……注方領直領也」
- 48) 久菴遺稿, 深衣說.
「司馬溫公曰 方領如今上領衣 但方裁之本 出胡服須用結紐云云」
- 49) 書儀, 卷 2.
「如孔所言似三代以前人 反如今時服上領衣 但方裁之耳 案上領衣出胡服 須用結紐 乃可服 不知古人果如此否也 鄭注周禮……顏師古注漢書……古亦有結紐也」
- 50) 江永, 深衣考誤, 禮類 3.
「方領 注云 兩襟相掩 衽在腋下則 兩領之會自方」
- 51) 朝鮮朝에서는 深衣가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즉 사각깃의 深衣가 추가되는데 이것은 조선조 韓百謙의 옥단설로 근거가 없는 학설로 평가되고 있다. 정혜경, 조선시대 深衣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3, No. 1, (1989).
- 52) 세종실록, 권 134.
- 53) 이기석 역주, 周易, 坤六二, 서문당, (1983).
- 54) 朴京子, 韓國服飾論攷, 新丘文化社, 37, (1983).
- 55) 文光姬, 韓·中 團領의 比較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3-14, (1987).
- 56) 孫敬子, 金英淑, 韓國服飾史資料選集, 朝鮮篇 III, 敎文社, 489, (1982).
- 57) 張末元, 앞책, 36.
- 58) 바로 앞책, 40.
- 59) 朱子語類, 卷 第 91, 禮 8, 雜儀.
「隋場帝時 始令百官戎服 唐人謂之便服又謂之從省服 乃今之公服也」
- 60) 文光姬, 團領으로 推定되는 袍衫名稱에 대한 資料調査, 한국의류학회지, 第11권 1호, (1987).
- 61)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北京中國戲劇出版社, 132, (1984).
- 62) 바로 앞책, 145.
- 63) 中國古代服飾研究, 台北龍田出版社, 251, (1981).
- 64) 杉本正年, 東洋服飾史論攷, 中世編, 115, 130, (1984).
- 65) 中國古代服飾研究, 앞책, 167.
- 66) 王宇清, 中華服飾圖錄, 台北世界地理出版社, 119, (1984).